

언어논리영역

문 1. 다음 글에서 언급한 ‘보고서’의 내용으로 적합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기업들이 일부 기능이나 활동을 외부에 맡기는 아웃소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에는 기회보다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연구소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글로벌 아웃소싱의 대상 지역이 생산 부문은 중국, 정보기술(IT) 부문은 인도 등으로 집중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존 공급기지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웃소싱 확산에 따른 산업 재편에 대응하여 아웃소싱의 전략적 활용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층 까다로워진 경쟁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대기업들이 중국 등으로 거래선을 바꾸면서 ‘연결고리가 끊어진 구슬’과 같은 처지가 됐기 때문이라며 아웃소싱 확산 추세에 적응하지 못하면 산업 기반의 침하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는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인 B업체를 아웃소싱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으면서 기업들에 대해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는 전문 아웃소싱 업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 협력 업체 간 수평적 거래관계를 가능하게 할 법규와 제도를 마련하고 그 감시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보 기>

- ㄱ. 정부는 대기업과 국내 협력 기업 간의 관계 조성보다는 개별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하는 전략적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
- ㄴ. 생산 부문의 국내 기업들은 중국으로, 정보 기술 부문의 국내 기업들은 인도로 회사나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 ㄷ.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별 기업은 핵심 역량과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 ㄹ.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 역량의 강화는 심화되는 국제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2.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9세기 중반에는 심리학에 영향을 미친 두 개의 학문이 존재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사변 철학이었고, 다른 하나는 생리학이었다. 당시는 생리학자들이 그들의 학문보다 사회적 위상이 낮은 철학을 사변적인 학문으로 몰아붙이고 경멸하던 시기였다. 독일의 생리학자 분트는 생리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 온 경험과 실험 기법을, 비과학적이라고 경멸되던 철학에 접목시켜 실험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분트는 특히 두 가지에 역점을 두었는데, 첫째는 실험심리학을 과학과 같은 경험적 관찰과 실험에 입각한 학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이 학문을 철학과는 별개인 새로운 학문으로 선언하는 것이었다.

실험심리학은 이후 유럽 각국에서 대조적인 발전 양상을 보였다. 분트를 계승한 독일에서는 실험심리학이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자리잡아 발전을 거듭한 반면,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세월에 따라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프랑스에서는 생리학이 독일처럼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아직 팽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생리학 분야의 경쟁이 독일보다 매우 약했다. 둘째, 프랑스에서 학자들은 대학교수가 아니어도 학문적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에서는 대학교수 자리에 대한 경쟁이 독일보다 훨씬 미약했던 것이다. 셋째, 독일에 비해 프랑스에서는 학문의 전문화나 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 학자가 곤충학, 실험심리학, 법학, 교육학 등의 여러 분야를 다루는 경우도 있었다.

영국의 경우는 프랑스보다 실험심리학이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자리잡기가 더 힘들었다. 첫째, 영국도 프랑스와 같이 생리학이 팽창 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권위 있고 과학적이라고 생각된 생리학에 더 많은 연구자가 몰려들었고, 상대적으로 실험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소수였다. 둘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대학 밖에서 얼마든지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1832년 이전에는 영국에 2개, 스코틀랜드에 4개의 대학만이 있었고, 1910년에 가서야 약 10개의 대학이 신설되었다. 이것은 학자들의 이동이 어려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자들 간의 경쟁이나 새로운 학과 형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 ① 새로운 학문이 분과 학문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에 학문 교류가 필요하다.
- ② 학문의 전문화나 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프랑스에서는 실험심리학의 발전이 어려웠다.
- ③ 독일과 프랑스에서 생리학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지의 여부는 실험심리학의 발전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다.
- ④ 분트는 생리학을 철학에 접목하여 실험심리학을 탄생시키면서 실험심리학을 철학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⑤ 대학 밖에서도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영국에서는 새로운 학과 형성이나 학자들 간 경쟁이 어려웠다.

- 문 3. 다음의 괄호를 개념 A나 B 중 어느 하나로 채운다고 할 때, ㉠ ~ ㉤에 들어갈 개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980년대 진화생물학에서는 A와 B라는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굴드는 1982년 브르바와 공저한 논문에서 사람들이 당연히 [㉠]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사례들 중 일부는 새로 [㉡]라고 부르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논증한다. 예를 들어 새의 날개깃은 새가 공중을 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지만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추측해 온 바와 달리 그와 같은 쓰임새 때문에 진화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존의 개념에 따르자면 어떤 형질이 [㉢]의 사례이기 위해서는 그 형질을 갖는 것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진화의 과정 속에서 보존되었어야 하는데, 새의 날개깃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란 이처럼 현재의 기능과는 다른 어떤 기능과 관련하여 진화했거나, 애초에는 아무 쓰임새도 없이 그저 다른 발달의 부산물로 진화한 형질이 나중에 새로운 쓰임새를 얻게 된 경우를 가리킨다.

- ① A A B B
② A B A A
③ A B A B
④ A B B A
⑤ A B B B

- 문 4.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가장 적절한 문단 배열은?

가. 150년 전 독일의 네안데르탈에 있는 펠드호퍼 동굴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이 처음 발견되었는데, 지난 1997년에 이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DNA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현대 인간의 DNA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의 DNA는 유럽인보다는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의 DNA와 더 비슷하였다. 만일 네안데르탈인에서 현대의 유럽인이 기원했다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유럽인의 유전자와 훨씬 더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은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유전자를 거의 물려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나. 네안데르탈인은 약 4만 년 전, 유럽에서 살았던 초기의 인간으로, 키는 작았지만 근육질이였으며, 형태는 조금 달랐지만 현대인과 같은 크기의 뇌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큰 눈썹과 큰 광대뼈, 그리고 큰 코를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초기 인간인 크로마뇽인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크로마뇽인을 오늘날 유럽인의 직계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현대 유럽인이 네안데르탈인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일부 인류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크로마뇽인에서 진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다. 네안데르탈인이 크로마뇽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네안데르탈인 아기의 DNA 분석 증거는 매우 강한 확신을 준다. 그러나 과학적 논쟁의 특성상 일부 연구자들이 DNA 분석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네안데르탈인 아기는 겨우 생후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그로부터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의 뼈 형성 과정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스페인의 라거벨호 지역에서 2만 4천 년 전에 살았던 어린아이의 유골을 발견하였는데, 이 어린아이의 이와 턱은 현대인의 것과 유사하지만 아래턱과 땅딸막한 몸은 네안데르탈인과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의 유전자가 서로 섞였다고 믿는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뒤, 네안데르탈인과 유사한 특징들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유지된 것은 과거에 그들의 유전자가 섞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라.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발견에 의문을 갖는다. 왜냐하면 화석에서 오염되지 않은 재료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워 고대의 DNA를 연구하는 분야는 상당히 도전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석에서 고대 DNA의 분리 성공했다는 연구 보고들은, 화석에서 분리된 DNA가 박테리아나 곰팡이의 DNA 또는 연구자들의 DNA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그러나 2001년에 북구 코카서스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아기의 가슴뼈에서 추출한 DNA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네안데르탈인 아기의 DNA를 이전에 연구된 펠드호퍼 DNA와 현대인의 DNA, 침팬지의 DNA와 비교하였는데, 네안데르탈인 아기의 DNA는 펠드호퍼의 DNA와 가장 비슷하였으며 현대인의 DNA와는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마. 그러나 같은 시대에 가까운 곳에서 살았던 두 집단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생각은 더 이상 그럴듯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은 크로마뇽인과 완전히 다른 종일까, 아니면 두 종의 유전자가 섞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새로운 유전학적 증거에 의해, 일부 연구자들은 두 집단의 유전자가 거의 섞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 ① 가 - 나 - 다 - 라 - 마
② 가 - 라 - 마 - 나 - 다
③ 나 - 마 - 가 - 다 - 라
④ 나 - 마 - 가 - 라 - 다
⑤ 다 - 가 - 마 - 라 - 나

문 5. 다음 각 사건의 중심 쟁점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법무부는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피해자 본인을 대신해 해당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자에게 전자메일 등으로 삭제 요청을 했다.
- ② 법원은 김 아무개 씨가 신청한 ‘본인 동의 없는 성형수술 전후 사진의 무단지 무단 게재 건’에 대해 김 씨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해당 성형외과 측에 1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 ③ A그룹 전·현직 직원들이 핸드폰 위치 추적을 당했다며 검찰에 A그룹을 고소한 가운데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 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제보 사실 등을 밝혔다.
- ④ 경찰이 음란물에 이어 최신 영화 파일을 무단 유포한 네티즌을 대거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에 따라 P2P 파일 공유에 대한 수사 분야가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 ⑤ 법원은 온라인 사업자 B가 제휴 업체인 C보험사에게 자사의 고객 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원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한 형식적인 동의만을 구함으로써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취했다고 보고 B는 회원들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 6. 다음의 혁신추진단계 중 제3단계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혁신추진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조직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파악하여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공유하는 단계, 제2단계는 분위기를 고양할 수 있는 혁신 비전을 수립하여 구성원들에게 전파하며 혁신 지원팀, 권한의 범위와 부여 방법, 평가체계 등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 제3단계는 혁신 전담조직이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의사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혁신 비전과 로드맵을 추진하는 혁신 단기성공사례 창출단계, 제4단계는 혁신 참여 대상의 확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성공사례를 확산하며 모델화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는 단계, 제5단계는 고정관념 극복을 체질화하고 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피드백함으로써 혁신 지속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 ① 조직 내 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발굴된 성공사례를 책자 등으로 만들어 배포하며, 성공 경험을 다른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혁신 목표를 조직과 개인의 목표와 연계할 수 있는 혁신활동 평가지표를 만들고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혁신지원단을 구성하며 소속 산하기관 등과의 중·횡적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③ 혁신 추진을 위해 조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파악하고, 장·단기에 걸쳐 위협과 기회를 비교해 보며, 구성원들이 토론을 거쳐 명확하고 간결하게 혁신에 대한 정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 ④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성공사례를 한 가지라도 우선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실시하고, 도출된 혁신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위대로 시행한다.
- ⑤ 혁신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진척상황표를 만들고, 혁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혁신점검표를 제작하여, 혁신 추진과정에 대해 정기적인 진단 및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문 7. 아래 두 글을 읽고 판단했을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안락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통상 안락사는 회복될 가망이 없는 병자에게 고통스러운 삶 대신 편안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하다. 첫째,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와 ‘반자의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둘째, 안락사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 즉 환자 스스로 안락사 관행을 취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이 안락사 시켜 준 것인가에 따라 ‘능동적 안락사’와 ‘수동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셋째, 수동적인 경우 안락사 시행주체(의사)가 약물투입 등의 수단으로 죽음에 다다르게 한 것인지, 아니면 방치에 의해 죽게 한 것인지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나. 안락사에 고려될 수 있는 도덕적 조건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ㄱ) 안락사는 환자의 희망에 따른 자의적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ㄴ) 안락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ㄷ) 안락사는 죽음을 결과하므로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명존중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신생아나 의식이 없는 식물상태의 사람들에게 자의적·능동적 안락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자의적·수동적·적극적 안락사나 반자의적·수동적·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
- ③ (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자의적·수동적·적극적 안락사나 반자의적·수동적·소극적 안락사를 도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④ (ㄱ)과 (ㄴ)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의적·수동적·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
- ⑤ (ㄱ), (ㄴ), (ㄷ)을 모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의적·수동적·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

① $(\neg), (\sqcup)$ ② $(\sqcup), (\exists)$
 ③ $(\exists), (\sqcap)$ ④ $(\neg), (\sqcup), (\sqcap)$
 ⑤ $(\neg), (\sqcup), (\exists)$

문 10. 다음 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장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상대주의는 진리에 상대적 국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적 권위든지 이성적 법칙이든지 절대성을 표방하는 모든 것을 배격한다. 진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상대주의 이외의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억압적 체제나 규범을 비판하는 것과 모든 형태의 규범이나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후자는 다원주의를 넘어서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상대주의는 가치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극단적 실용주의를 부추긴다. 또 아예 드러내 놓고 학문이 이데올로기와 권력투쟁의 도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절대적 진리의 존재가 부정될 때 남는 것은 ‘의견’뿐이다. 한 사회나 문화를 지배하는 거대 담론이 사라지면 상대주의가 활개치게 되고 완전히 규제가 풀린 세계가 된다. 거기에는 단순한 구호와 유행 그리고 피상적 이미지가 진리와 의미를 대변하게 된다. 또 신앙이나 이성에 의해 규제되던 감정, 관능, 탐욕 등의 폭발적 해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요즈음 예술 특히 상업 예술이나 대중 예술의 급진성은 이런 분위기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잘못된 절대주의의 붕괴는 환영할 만하지만 상대주의와 무정부 상태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악이다. 이런 세계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형태가 정신분열증과 테러리즘이라는 지적은 옳다.

—<보 기>—

- ㄱ. 모든 형태의 절대주의는 상대주의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ㄴ. 상대주의는 정신적 폐쇄함과 정치적 과격함, 예술의 선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 ㄷ. 상대주의는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결과를 초래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 ㄹ. 상대주의는 상대주의 자체를 궁극적인 것으로 절대시한다.
- ㅁ. 실용주의는 상대주의를 야기하고 상대주의는 다원주의를 초래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문 11. 다음 글에서 나타나는 역설적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정신이 행동의 원인이라고 믿어 왔다. 예컨대 손을 올리고자 하는 나의 의지는 손을 올리는 나의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믿는다. 반면 최근 일부 인지 과학자들은 행동의 인과적 발생에 정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믿는다. 인간의 행동은 그 원인이 되는 물리적 사건들—뇌 속의 뉴런의 변화, 뉴런으로부터 전달된 전기화학적 에너지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변화, 다시 근육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설명된다는 것이다.

- ① 정신적 현상은 물리적 현상의 일종임을 설명한다.
- ② 정신적 현상은 물리적 현상에 수반된다고 설명한다.
- ③ 어떤 행동이라도 아무런 원인 없이 발생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 ④ 정신적 현상은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실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⑤ 정신적 현상은 실제로 아무런 인과적 힘을 갖지 않음을 인정하고, 왜 사람들이 정신이 인과적 힘을 갖는다고 잘못 생각하는지를 설명한다.

문 12. 다음 글에 나타난 자유주의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보충되어야 할 전제는?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이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어느 정도 과장은 있을지언정, 기성세대가 청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정부 일각에서는 청소년에게 공익의 중요성과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올바른 국가관의 정립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일정 기간 공익 요원으로 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오직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국가는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국가관의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공익 봉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는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진 그 법안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①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②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③ 오늘날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비행은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 ④ 국가관 교육과 공익에 봉사하는 것이 청소년의 비행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 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비행은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

문 13. 다음은 복통 발생과 그 원인에 대한 기술이다. 복통의 원인이 생수, 냉면, 생선회 중 하나라고 할 때, 아래의 진술 중 반드시 참인 것은?

- ㄱ. 갑돌이는 생수와 냉면, 그리고 생선회를 먹었는데 복통을 앓았다.
 ㄴ. 을순이는 생수와 생선회는 먹지 않고 냉면만 먹었는데 복통을 앓지 않았다.
 ㄷ. 병돌이는 생수와 생선회는 먹었고 냉면은 먹지 않았는데 복통을 앓았다.
 ㄹ. 정순이는 생수와 냉면은 먹었고 생선회는 먹지 않았는데 복통을 앓지 않았다.

- ① ㄴ, ㄹ의 경우만 고려한다면 냉면이 복통의 원인이다.
 ② ㄱ, ㄴ, ㄹ의 경우만 고려한다면 냉면이 복통의 원인이다.
 ③ ㄱ, ㄷ, ㄹ의 경우만 고려한다면 생수가 복통의 원인이다.
 ④ ㄴ, ㄷ, ㄹ의 경우만 고려한다면 생선회가 복통의 원인이다.
 ⑤ ㄱ, ㄴ, ㄷ, ㄹ 모두를 고려한다면 생수가 복통의 원인이다.

문 14. 다음 조건이 모두 성립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ㄱ.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뉴스를 좋아하지 않는다.
 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는다.
 ㄷ.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신문 보기보다는 책 읽기를 더 좋아한다.
 ㄹ.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책 읽기보다는 신문 보기를 더 좋아한다.
 ㅁ. 영미는 책 읽기보다는 신문 보기를, 철수는 신문 보기보다는 책 읽기를 더 좋아한다.

- ① 철수는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뉴스를 좋아하지 않는다.
 ② 영미는 뉴스를 좋아하지만, 드라마는 좋아하지 않는다.
 ③ 영미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철수는 뉴스를 좋아하지 않는다.
 ④ 철수는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고, 영미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⑤ 영미는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고, 철수는 뉴스를 좋아하지 않는다.

문 15. 전체가 참일 경우 결론을 지지하는 추론의 강도가 아래의 논증과 같은 것은?

우리 등산 동우회 회원은 모두 여덟 명이다. 따라서 우리 동우회원 중 같은 요일에 태어난 사람이 적어도 두 명은 된다.

- ① 지금까지 해가 서쪽에서 뜬 적은 없었다. 따라서 내일도 해는 서쪽에서 뜨지 않을 것이다.
 ② 철수는 바로 아래 동생 영수와 닮았고, 영수는 막내 길수와 닮았다. 따라서 철수가 길수와 닮았음은 당연하다.
 ③ 올림픽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모두에서 우승한 사람만이 유도의 일인자이다. 그런데 갑수는 올림픽대회에 출전한 적이 없으므로 유도의 일인자는 아니다.
 ④ X 백과사전에는 공생 관계에 대한 항목이 있다. Y 백과사전도 X 백과사전처럼 매우 좋은 백과사전이다. 따라서 Y 백과사전에도 공생 관계에 대한 항목이 있을 것이다.
 ⑤ 오늘 아침 신문에 북아프리카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일어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음에 틀림이 없다.

문 16. (나)의 사고 실험(thought experiment)은 (가)의 결론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비판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컴퓨터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튜링은 다음과 같은 모방 게임을 제안한다. 이 게임의 참여자는 질문자, 남자, 여자의 세 명이다. 질문자는 다른 두 명과 다른 방에 격리되어 있다. 남자와 여자는 질문자에게 ‘X’와 ‘Y’로만 알려져 있다. 질문자의 목표는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질문함으로써 누가 여자이고 누가 남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남자의 목표는 질문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여자의 역할은 질문자를 돕는 것이다. 물을 수 있는 질문의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제 이 남자를 컴퓨터로 대체해 보자. 그러면 그 질문자의 목표는 어느 것이 인간이고 어느 것이 컴퓨터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 컴퓨터는 질문자를 속여 컴퓨터를 인간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만일 그 컴퓨터가 남자만큼 그 일을 잘한다면 컴퓨터도 인간처럼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 일련의 중국어 기호들을 또 다른 중국어 기호들로 체계적으로 변형시키는 규칙들이 적혀 있는 책이 비치된 방이 있고, 그곳에 중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길동이가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 책은 길동이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설명되어 있다. 길동이는 그 책에 쓰인 규칙 전부를 기억하여 그 규칙에 따라 일련의 중국어 문자들을 받을 때마다 즉시 적절한 일련의 중국어 문자들을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중국어 표현들을 조작하는 데 매우 숙련되어 있다. 그 방 밖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은 마치 중국어를 아는 사람이 그 방 안에 갇혀 있는 경우와 정확히 동일하다. 그러나 길동이가 중국어를 안다고 볼 수는 없다.

- ①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불멸의 영혼의 기능이다.
 ②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는 뇌와 정신의 관계와 유사하다.
 ③ 기호와 기호의 조작에 대한 규칙이 충분히 많으면, 그 규칙들에서 의미가 창출된다.
 ④ 컴퓨터의 계산 과정은 기호들의 형태에만 반응하는 것으로, 기호들의 의미와는 무관하다.
 ⑤ 만일 두 체계—인간과 컴퓨터—가 입·출력에서 동일하다면, 그것들은 동일한 심리적 지위를 갖는다.

문 17. 다음 글에 제시된 A의 주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진술은?

A: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면, 그런 존재는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항상 좋은 것만을 욕구하는 존재입니다.

B: 그건 유지되기 어려운 견해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욕구를 경험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범죄는 대부분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마약 중독자가 강력히 원한다고 해서 마약이 좋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A: 제 견해를 오해하셨군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원하는 것은 마약이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자는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것 뿐입니다.

- ① 마약 중독자들에게는 처벌이 아닌 치료가 필요하다.
- ② 합리적인 계획 하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 ③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 ④ 아이를 물어죽인 개를 사살하는 것도 개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다.
- ⑤ 인간이 아닌 동물들 중에도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는 동물들이 존재한다.

문 18. 다음 글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진술을 <보기>에서 골라 짝지은 것은?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순수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과학자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응용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에게나 적용되는 말이다. 순수과학에 관한 한, 과학자의 책임은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적절히 알리는 것 뿐이다.

—<보 기>—

- ㄱ. 응용과학은 순수과학보다 발전 속도가 더 빠르다.
- ㄴ.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구분이 쉽지 않다.
- ㄷ. 응용과학의 성과물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 ㄹ. 순수과학도 인간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ㅁ. 응용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의 수가 순수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의 수보다 많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ㅁ
- ⑤ ㄹ, ㅁ

문 19. 다음 글에 제시된 원인 진단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래에 와서 청소년의 교내의 폭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다양하고 잔인한 형태를 띠고 있다. 장차 우리 사회를 젊어지고 나갈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폭력의 증가와 심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최근 TV 드라마와 영화에 폭력물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 내외의 폭력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① 학교 내외의 청소년 폭력과 대중 영상 매체의 폭력적 내용 사이에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검토해 봐야 한다.
- ② 기성세대가 암암리에 가지고 있는 폭력적 성향이 청소년 폭력과 대중 영상 매체에서의 폭력적 내용, 양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검토해 봐야 한다.
- ③ 위 글의 결론과는 반대로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서의 폭력적 성향이 대중 영상 매체에서 폭력적 내용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검토해 봐야 한다.
- ④ 위 글에서의 진단은 청소년 폭력 증가와 영상 매체의 폭력적 내용 증가 사이의 인과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인과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한 원인 진단이라 보기 힘들다.
- ⑤ 청소년 폭력 증가의 원인이 최근의 영상 매체의 폭력성 증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교내의 청소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통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적절한 원인 진단으로 보아야 한다.

문 20. 다음 논증 중 전제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것은?

- ① 영호는 주식 투자에서 이득을 보았는데, 주식 투자에서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누군가는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보았다.
- ② 오직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의 이동이 발생할 때에만 열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열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의 이동이 발생한 것이다.
- ③ 마이클 조던이 최고의 농구 선수라면 공중에 3초 이상 떠 있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마이클 조던은 2.5초밖에 공중에 떠 있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이클 조던을 최고의 농구 선수라고 할 수 없다.
- ④ 도덕적 판단이 객관성을 지닌다면 도덕적 판단은 경험적 근거를 가지며 유전적 요인과는 무관할 것이다. 사람들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행위를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때, 도덕적 판단은 경험적 근거를 가진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이 유전적 요인과 무관하다면 도덕적 판단은 객관성을 지닌다.
- ⑤ 푸른 리트머스종이를 산성용액에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화하고 알칼리성용액에 넣으면 색깔이 변화하지 않는다. 이제 산성이든가 알칼리성인 어떤 용액 속에 푸른 리트머스종이를 넣었다. 만약 푸른 리트머스종이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용액이 알칼리성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문 21. 다음 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9세기 후반부터 진공펌프와 높은 전압을 내는 장치가 발명되면서 물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진공방전(vacuum discharge) 실험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유리로 만든 관 내부에서 공기를 빼내어 높은 진공상태를 만든 후 다른 기체를 약간 넣고 금속판을 연결하여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높은 전압을 방전시키는 실험이었다.

이 실험에서는 유리관 내부에서 특이한 빛이 관찰되었을 뿐 아니라 음극에서 양극으로 어떤 이상한 빛을 내는 선이 흐르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독일의 물리학자 골트슈타인은 이 선을 음극선이라고 불렀다. 골트슈타인은 또한 어떤 금속을 전극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음극선의 성질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897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톰슨은 음극선에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걸었을 때 음극선이 휘어지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음극의 금속 원자에서 튀어나와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의 전하와 질량의 비율(e/m)은 유리관 안에 들어 있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소이온의 경우에 비해 약 1,000배가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런데 음극선 입자의 전하와 수소이온의 전하는 크기가 같기 때문에, 실험 내용은 음극선 입자의 질량이 원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소 원자 질량의 약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원자보다 훨씬 가벼운, 음전기를 띠는 입자가 원자 내부에 들어 있는 것이 확실해진 것이다.

그후 이 입자는 스톨리가 ‘전자’라고 불렀던 입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업적으로 190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 ① 진공방전 실험만으로는 음극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 ② 전자의 전하와 질량 비율은 유리관 속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졌다.
- ③ 톰슨은 전자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 음극선에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걸어 주었다.
- ④ 톰슨의 실험은 특정한 기체 속에서만 모든 금속 원자가 똑같은 전자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⑤ 음극선 입자의 전하와 수소이온이 갖는 전하의 크기가 같다는 사실을 토대로 원자 내 전자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문 2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사유재산의 절대성과 자유계약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시민법질서는 형식적 평등과 형식적 자유를 보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 생활을 확보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실질적 평등과 자유의 보장을 위한 노력을 포기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 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되면서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확보할 적절한 법 제도와 법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다.

근대 민법의 고용 관계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와 노동자를 평등한 인격체로 전제하면서 양자 간에 균형 있는 이해관계를 유지·실현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민법전에 마련되어 있는 고용 관계의 규정만으로는 산업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이 자본 즉,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용자들에게 종속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노동법은 노동자의 근로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여 그의 생존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이다. 따라서 노동법은 그 이념뿐 아니라 대상에 있어서도 종래의 시민법 체계에 속하는 여러 법규들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은 객관적으로는 상품으로서의 성질을 지니지만 주관적으로는 인격을 갖춘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상품으로 대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노동은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저장할 수가 없다. 다른 상품들은 가격 변동에 따라 이를 저장한다든가, 판매함으로써 수급 체계를 조절하여 그 교환가치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 노동은 축적과 저장이 불가능하며, 노동의 저장이란 실제로는 ‘실업’ 즉, 생존의 위협을 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는 그 대가가 많은 적든 간에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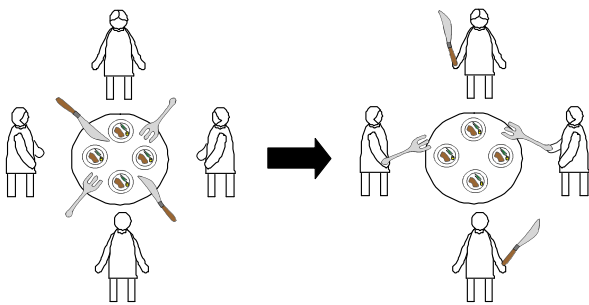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인간 노동의 본질적 성격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노동 인격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즉 노동의 재생산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노동 대가와 그외의 노동조건을, 그리고 거래 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집단적 행동을 위한 법적 장치들을 승인하고 보호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노동자에 대한 후견적 배려로서 여러 특별법적 장치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 ① 노동자는 노동의 본질적 특성상 적은 대가로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다.
- ② 근대 시민법질서는 법 제도와 법 기술적 측면에서 노동 인격을 실질적으로 존중하지 못하였다.
- ③ 근대 민법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국가의 입장을 반영한 법이다.
- ④ 국가의 노동자에 대한 특별법적 배려는 근대 민법의 고용 관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
- ⑤ 노동 인격의 확보를 위해 임금, 노동조건은 물론 노동자의 집단적 행동을 위한 법적 장치가 보호될 필요가 있다.

- 문 23. 규칙 A와 B가 각각 다음 글에 진술된 ‘교착상태 발생의 조건’ 중 어떤 것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자. 바르게 짝지어진 것끼리 묶은 것은?

교착상태(deadlock)란 행위자들이 작업 수행을 위하여 정해진 자원을 사용할 때, 최초의 행위자 모두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영원히 기다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교착상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하나의 자원은 동시에 두 행위자가 공유할 수 없으며 배타적으로 점유된다.
2. 이미 획득한 자원을 점유한 채 추가로 필요한 자원을 기다린다.
3. 행위자가 이미 획득한 자원은 해당 작업을 마칠 때까지 점유한다.
4. 행위자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행위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필요로 한다.



(교착상태 발생)

위 그림은 유명한 교착상태의 예이다. 식사하려는 네 사람 각각은 자신 양편의 나이프와 포크를 모두 집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한번 집은 도구는 사용한 후 원래 위치에 내려놓는다. 포크와 나이프는 두 세트뿐이다. 만약 식사 시작 직후 동시에 네 사람이 오른쪽에 놓인 도구를 집어 들고 왼쪽 사람이 도구를 내려놓기를 기다린다면 영원히 식사를 못하게 된다. 그러나 적절한 규칙을 세운다면 이러한 상태를 방지하거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규칙 A: 식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나이프를 포크보다 먼저 집되, 자기 오른쪽에 놓인 도구를 먼저 집는다.

규칙 B: 교착상태가 발생할 경우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이 점유한 도구를 뺏을 수 있다. (나이가 모두 다르다고 가정함)

- ① A-1, B-2
- ② A-1, B-3
- ③ A-2, B-1
- ④ A-4, B-1
- ⑤ A-4, B-3

- 문 24. 다음 글에서 추정할 수 있는 ‘최초의 생명체’의 특징을 바르게 묶은 것은?

긴 세월 동안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하여 변화한 과정은 기존의 유기물을 이용하는 종속영양 단계와 스스로 유기물을 만드는 독립영양 단계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먼저, 원시 지구는 온도가 높았으며 대기는 수증기(H_2O), 암모니아(NH_3), 메탄(CH_4) 등의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었고 다소 심한 환원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양광선(주로 자외선), 화산 활동, 공중방전 등으로 인해 지구 내의 에너지는 풍부하였다. 환원 상태의 무기물은 에너지가 많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유기물로 변할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실험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대기 중의 수증기는 점차 결집되면서 액체화하였고 그 양이 증가하면서 비를 만들었으며 비는 유기물을 바다에 농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최초의 생명체는 이 유기물을 이용하는 원시적 생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후 오랜 세월이 지나, 이 유기물이 고갈되면서 기존의 생물종은 대부분 사라지고 일부 우연히 생겨난 하등 생물이 살아남아 번성하게 되었다. 이 생물종과 유사한 종들이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기도 한데 이들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만들었고 그 결과 산소를 발생시킴으로써 대기의 구성을 크게 변화시켰다. 즉 원시 지구 대기에는 없었던 산소가 많아졌다. 이들 산소 중의 일부는 오존으로 바뀌었고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지구 표면으로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생물이 살 수 없었던 육상에서도 다양한 생물이 서서히 출현하게 되었다.

—<보 기>—

ㄱ. 풍부한 자외선을 에너지원으로 삼았다.

ㄴ. 종속영양생물이었다.

ㄷ. 호흡에 산소를 이용했다.

ㄹ. 바다를 생활환경으로 삼았다.

ㅁ. 유기물을 만들면서 대기 환경을 변화시켰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ㅁ
- ⑤ ㄹ, ㅁ

- ① 우리나라의 공적이전과 사회보장부담금 및 직접세제도는 미국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성장과 분배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므로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③ 우리나라의 시장소득은 미국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우리나라 시장의 분배 기능이 미국보다 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④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은 미국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시장의 분배기능이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 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저소득계층 지원 및 소득격차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00년 현재까지 소득불평등도가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 28. 다음 <표>는 관료제의 특성과 성공이유 및 실패이유를 요약하고 있다. <보기>는 실패이유의 극복방안을 해당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바르게 서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관료제

특성	성공이유	실패이유	극복방안
명령 계층구조	- 단순한 대규모 질서 확보 - 부서장의 하급자 통제를 통한 질서 확립	- 복잡성을 다룰 수 없음 - 지배(domination) 방식은 조직지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 못됨	ㄱ
전문화/기능별 조직	- 분업을 통한 효율성 - 집중된 지능	- 기능간 조정 결여 - 지속적·수평적 조정 결여	ㄴ
계급승진	- 충성심 확보 - 관리자/전문가 엘리트 집단의 지속성	- 동기부여 부족 - 더 교육받은 사람들은 빠른 승진을 기대함	ㄷ
비정규적 관계	- 정실·죽벌주의 억제 - 엄격한 기강 확립	- 정보집약업무에는 심층관계가 요구됨	ㄹ

<보 기>

- ㄱ. 비전과 가치를 통한 자율적 업무수행을 강조
 ㄴ. 개방형 직제의 설치를 통한 기능별 전문가 유지
 ㄷ. 능력중심의 보상제도 채택
 ㄹ. 개인중심의 사고방식 강화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문 29. 공정거래위원회의 김 사무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조항과 관련하여 아래 설명에서 제시되고 있는 HHI지수(허핀달 - 허쉬만 지수)를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보기> 중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취지로 법률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단,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한편, 학계에서는 시장의 집중도를 표현하는 지수로서 HHI지수를 이론적 분석에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합병가이드라인에서도 20년 전부터 산업 집중도의 척도로서 HHI지수를 사용하였다. HHI지수는 산업 내 모든 기업의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계한 값으로 정의된다. 예컨대, 시장을 두 개 기업이 같은 비율로 양분하고 있는 경우 HHI지수는 $0.5 \times 0.5 + 0.5 \times 0.5 = 0.5$ 가 된다.

<보 기>

- ㄱ. 1, 2, 3, 4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0%, 30%, 8%, 5%인 상황인 경우 3위 사업자는 현행 법률의 규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ㄴ. ‘ㄱ’의 경우에서 3위 사업자가 4위 사업자와 합병하게 되면 3위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ㄷ. ‘ㄴ’에서 합병 전보다 합병 후에 HHI지수는 크다.
 ㄹ. 1, 2, 3, 4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40%, 40%, 10%, 10%인 상황(상황 1)과 30%, 30%, 30%, 10%인 상황(상황 2)이 있을 때, HHI지수에 따르면 상황 1의 시장 경쟁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ㅁ.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00%인 경우 HHI지수는 가장 큰 값을 갖는다.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 문 3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에서 혁명적 변화는 정상적 변화와 다르다. 혁명적 변화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사용되던 개념들로는 수용할 수 없는 새로운 발견들을 동반한다. 과학자가 새로운 발견을 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의 자연현상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기술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뉴턴의 제2 운동 법칙의 발견이 이러한 변화에 해당한다. 이 법칙이 채택하고 있는 힘과 질량의 개념은 이 법칙이 도입되기 전까지 사용되던 개념들과는 다른 것이었고, 이 새로운 개념들의 정의를 위해서는 뉴턴의 법칙 자체가 필수적이었다.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비교적 단순한 또 하나의 사례는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에서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으로의 전이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전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태양과 달은 행성이었고 지구는 행성이 아니었다. 전이 이후에 지구는 화성이나 목성과 마찬가지로 행성이 되었고, 태양은 항성이, 그리고 달은 새로운 종류의 천체인 위성이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내의 개별적인 오류를 교정한 것이 아니다. 이 변화는 뉴턴 운동 법칙으로의 전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 법칙 자체의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된 자연 법칙 속의 몇몇 용어들이 자연에 적용되는 방식도 변화였다.

- ① 과학은 혁명을 통해 진보한다.
 ② 과학 용어의 의미와 지시 대상은 가변적이다.
 ③ 과학의 목적은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④ 정상적 변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반대 사례를 무시한다.
 ⑤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프톨레마이오스 이론보다 우월하다.

문 31. 다음 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을 법한 모든 사례가 아들러의 이론이나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나는 이 점을 인간 행위의 상반된 두 가지 예를 통해 보여 줄 수 있다. 하나는 아이를 익사시키기 위해 물속에 밀어넣는 사람의 행위이며, 다른 하나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사람의 행위이다. 이 두 경우는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이론에 의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 사람은—말하자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억압에 의해 고통받고 있으며, 두 번째 사람은 그 승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러의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 사람은 (자신도 감히 범죄를 저지러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입증해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는) 열등감에 의해 고통받고 있으며, 두 번째 사람은 (자신도 아이를 구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두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한 인간 행위는 하나도 생각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들의 이론이 항상 적합하며 항상 입증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 사실이 그 이론들을 신봉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론들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졌다. 그러나 외견상 강력해 보이는 이 점이 사실은 그 이론들의 약점이다.

- ① 억압과 열등감은 항상 동일한 행동을 유발한다.
- ②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위도 존재한다.
- ③ 인간의 행위는 애초부터 양면적인 성격을 지닌다.
- ④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한다고 반드시 좋은 이론은 아니다.
- ⑤ 프로이트의 이론은 아들러의 이론보다 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뛰어나다.

문 32. 다음 진술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사고 현장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운전자가 도로변의 가로수를 들이받기 전 급브레이크를 밟았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사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어제 저녁 내내 퍼부었던 비 때문에 아마도 도로에 자국은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증인들은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두 시간 전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겨우 반 잔 정도 마셨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반 잔이면 100m/정도고, 맥주의 알콜 농도는 5% 정도니까 음주 운전의 경우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증언에 따르면, 운전자가 동승했던 남편과 심한 말다툼을 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운전 중의 격한 말다툼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뚜렷이 저하시켜 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속칭 ‘해골커브’로 알려진 사고 장소는 한 해에도 수십 건의 사고가 일어날 만큼 커브가 급하고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미심쩍은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전자의 지갑 속에서 마치 유서 같은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아주 노련한 운전자였다는 점입니다.

—<보 기>—

- ㄱ. 만일 어제 저녁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급브레이크 자국을 발견했을 것이다.
- ㄴ. 사고 통계를 ‘해골커브’에서 운전자들의 주의력이 뚜렷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 ㄷ. 만일 증인들의 증언이 정확하다면 음주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 ㄹ. 차량이 커브길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이 사고로 적어도 두 사람이 사망했다.
- ㅁ. 운전자 부부의 말다툼이 사고 원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ㄷ, ㄹ, ㅁ

문 33. 다음 글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글의 결론을 성립시키는 데 필요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사 결과, 클래식 음악의 곡 전개에서는 음의 변화폭이 별로 크지 않았다. 대체로 뒤의 음은 앞의 음의 높이 근처에서 더 낮은 음이나 높은 음으로 진행했고, 큰 음폭으로 변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런 변화의 빈도가 두 음 간의 진동수 차이에 반비례한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음정의 변화폭이 클수록 곡에서 그런 멜로디가 등장하는 횟수는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런 규칙에 따르는 음악을 ‘1/f 음악’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f는 인접한 두 소리의 ‘진동수 차이’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다.) 흥미로운 것은 대중에게 호감을 주는 곡일수록 이런 규칙이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은 음향학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음악뿐 아니라 갖가지 세대의 울음소리나 시냇물 소리, 그리고 심장 박동 소리 같은 자연 생태계 속의 소리들이 대부분 1/f의 패턴을 따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중에게 호감을 주는 음악이 대개 1/f 음악인 이유가, 그런 음악과 자연의 소리 사이에 놓인 구조적 유사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인기곡을 분석한 평론에 ‘멜로디의 진행이 자연스럽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면 이때의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자연을 닮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 ① 1/f 음악은 대중적 인기를 끌 만한 특성을 지닌다.
- ② 사람들은 1/f의 패턴을 지닌 자연의 소리에 호감을 느낀다.
- ③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소리는 적절한 진동수 범위 안에 있다.
- ④ 작곡가들은 대중에게 인기 있는 곡을 작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 ⑤ 창작된 음악과 자연의 음향 사이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구조적 동질성이 존재한다.

- 문 34. 다음 글에 따라 두 번의 재배정을 한 결과, 병들은 홍보팀에서 수습 중이다. 다른 신입 사원과 최종 수습 부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신입 사원을 뽑아서 1년 동안의 수습 기간을 거치게 한 후, 정식 사원으로 임명을 하는 어떤 회사가 있다. 그 회사는 올해 신입 사원으로 두 명의 여자 직원 갑순과 을순, 그리고 두 명의 남자 직원 병돌과 정돌을 뽑았다. 처음 4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갑순은 기획팀에서, 을순은 영업팀에서, 병돌은 총무팀에서, 정돌은 홍보팀에서 각각 근무했다. 그후 8개월 동안 두 번의 재배정을 통해서 신입 사원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수습 중이다. 재배정할 때마다 <보기>의 세 원칙 중 한 가지 원칙만 적용되었고, 같은 원칙은 다시 적용되지 않았다.

—<보 기>—

(원칙 1) 기획팀에서 수습을 거친 사람과 총무팀에서 수습을 거친 사람을 서로 교체하고, 영업팀에서 수습을 거친 사람과 홍보팀에서 수습을 거친 사람을 서로 교체한다.

(원칙 2) 총무팀에서 수습을 거친 사람과 홍보팀에서 수습을 거친 사람만 서로 교체한다.

(원칙 3) 여성 수습 사원만 서로 교체한다.

- ① 갑순 - 총무팀 ② 을순 - 영업팀
③ 을순 - 총무팀 ④ 정돌 - 영업팀
⑤ 정돌 - 총무팀

- 문 35. 다음 글의 상황에서 <보기>의 사실을 토대로 신입 사원이 김 과장을 찾기 위해 추측한 내용 중 반드시 참인 것은?

김 과장은 오늘 아침 조기 축구 시합에 나갔다. 그런데 김 과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같은 회사의 어떤 신입 사원이 김 과장에게 급히 전할 서류가 있어 직접 축구 시합장을 찾았다. 시합은 이미 시작되었고, 김 과장이 현재 양 팀의 수비수나 공격수 중 한 사람으로 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보 기>—

ㄱ. A 팀은 검정색 상의를, B 팀은 흰색 상의를 입고 있다.
ㄴ. 양 팀에서 축구화를 신고 있는 사람은 모두 안경을 쓰고 있다.
ㄷ. 양 팀에서 안경 쓴 사람은 모두 수비수이다.

- ① 만약 김 과장이 공격수라면, 안경을 쓰고 있다.
② 김 과장은 흰색 상의를 입고 있거나 축구화를 신고 있다.
③ 만약 김 과장이 B 팀의 공격수라면, 축구화를 신고 있지 않다.
④ 만약 김 과장이 검정색 상의를 입고 있다면, 안경을 쓰고 있다.
⑤ 만약 김 과장이 A 팀의 수비수라면, 김 과장은 검정색 상의를 입고 있으며 안경도 쓰고 있다.

- 문 36. 먼 은하계에 X,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섯 행성이 있다. X 행성은 매우 호전적이어서 기회만 있으면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하고자 한다. 다음 진술이 참이라고 할 때, X 행성이 침공할 행성을 모두 고르면?

- ㄱ. X 행성은 델타 행성을 침공하지 않는다.
ㄴ. X 행성은 베타 행성을 침공하거나 델타 행성을 침공한다.
ㄷ. X 행성이 감마 행성을 침공하지 않는다면 알파 행성을 침공한다.
ㄹ. X 행성이 베타 행성을 침공한다면 감마 행성을 침공하지 않는다.

- ① 베타 행성
② 감마 행성
③ 알파와 베타 행성
④ 알파와 감마 행성
⑤ 알파와 베타와 감마 행성

- 문 3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웰즈의 소설 『타임머신』을 보면, 타임머신을 만든 발명가가 과거로 여행을 하면서 나비를 발로 밟음으로써 역사를 변화시키는 대목이 나온다. 시간 여행을 다룬 다른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역사를 바꾸는 위험에 대해 항상 걱정한다. 그러나 만약 역사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면 시간 여행자에 의해 모순이 생겨난다. 어떤 시간 여행자가 그의 할아버지가 소년이었던 과거로 시간 여행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이 시간 여행자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총으로 살해했다고 하자. 그러나 할아버지가 자식을 보지 못하고 사망한다면 그 손자 역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총 한 방은 바로 그 사건의 발생을 위한 필요조건을 제거해 버리는 결과를 낳고 만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시간 여행은 논리 법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옹호하는 사람은 위의 반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_____’

- ① 비교적 가까운 과거로의 여행은 논리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② 역사는 시간 여행 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다.
③ 과거로의 시간 여행자는 나비를 발로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④ 시간 여행자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다면 자신의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⑤ 호킹을 과거로 데려가 아인슈타인과 공동 연구를 시킨다면 더욱 많은 업적을 남길 것이다.

문 38. 다음 글에서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이의 이른바 ‘십만 양병설’은 그 수제자로 알려진 김장생이 이이가 죽은 뒤에 지은 『율곡행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선조실록』이나 『경연일기』 등 당대의 기록을 모두 들춰 봐도 이이가 십만 양병을 주장했다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그가 병조판서를 맡았을 때 변방에 소요가 일어나자 그 방비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조선조 역대 병조판서의 통상적 발언이었을 뿐이다.

조선 후기로 올수록 이이의 제자와 그 후예들은 십만 양병설을 자주 거론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인구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서울에 2만, 각 도에 1만, 모두 합하여 10만을 양병하자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였다. 이익 같은 실학자도 그런 주장이 민본 정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고, 실제로 효종 때 어영청 군대 3만을 양성하면서 국가 재정이 고갈되어 허덕대다가 결국 실패한 사례도 있다.

이이가 십만 양병을 주장했다는 것이 의심스러운 근거는 또 있다. 동인인 유성룡이 경연석상에서 서인과 가깝던 이이에 반대하여 십만 양병설을 무산시킨 뒤, 훗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문성은 과연 성인이다.”라며 탄식했다고 김장생은 『율곡행장』에서 적고 있다. 그런데 이이의 시호인 ‘문성공’은 인조 2년(1624)에 정한 것이고, 유성룡은 그보다 17년 전인 선조 40년(1607)에 죽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이를 ‘이문성’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 김장생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는다.

이처럼 십만 양병설은 국방에 대한 교훈적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역사적 신빙성은 약하다. 후대에 기록된 역사서로서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연려실기술』도 앞서의 기록을 인용한 데 불과할 따름이다.

—<보 기>—

- ㄱ. 이이가 서인과 가까웠기 때문에 유성룡이 반대했다.
 ㄴ. 이이는 변방의 방비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다.
 ㄷ. 김장생이 이이의 수제자라는 것은 역사적 신빙성이 약하다.
 ㄹ. 『선조실록』과 『경연일기』에는 이이가 십만 양병을 주장했다는 내용이 없다.
 ㅁ. 김장생은 유성룡이 이이를 ‘이문성’으로 불렀다고 아무런 해명 없이 적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ㄷ, ㅁ

문 39. 다음의 세 명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가) 우리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믿을 경우에만 그것에 대해 감정을 갖는다.
 (나) 우리는 소설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다) 우리는 소설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종종 감정을 갖는다.

- ① 위의 세 명제가 모두 함께 참일 수는 없다.
 ②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를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③ (가)와 (나)를 동시에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은 소설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진짜 감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④ (가)와 (다)를 동시에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은 소설을 읽는 동안에는 그 소설 속의 인물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⑤ (가)와 (나)를 동시에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은 소설을 읽으면서 가지는 감정의 대상은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실제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문 40. 다음과 같은 논증을 올바르게 비판한 것을 모두 고르면?

- (전제 1) 만일 국제 평화가 유지된다면, UN은 불필요하다.
 또 만일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UN은 전쟁 방지라는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전제 2) 국가 간에는 평화 아니면 전쟁 상태만 존재한다.
 (결 론) 따라서 UN은 불필요하다.

—<보 기>—

- ㄱ. UN은 전쟁을 방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들도 갖고 있다. 예컨대 기아에 직면한 국가를 돕는 것 같은 목적을 성취한다면, UN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
 ㄴ. UN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은 두 전제로부터 타당하게 도출되지 않는다. 즉 두 전제를 모두 참이라고 가정해도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
 ㄷ. 국제 평화의 실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는지 둘 중 하나라는 전제가 틀렸다. UN의 중재를 통해, 전면적인 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화도 아닌 긴장 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